

골롬반 선교

2020년 여름호

vol.115

선교와 한반도 평화
로까! 힘내세요!
도봉에서 온 손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골롬반 선교

2020년 여름호 vol.115

편집실 Tel. 02-927-2705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마음을 여는 글 03 어둠에서 빛으로 김종근 도밍고 신부

선교와 한반도 평화 04 평화를 향한 여정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8 탈북 청소년과의 동행 김영년 데레사 수녀

10 평화의 길 박선희 세실리아

지원사제 12 와서 보아라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

그림 묵상 14 코로나19와 인간의 모습 안재선 제이슨 신부

평신도선교사 16 로까! 힘내세요! 배시현 소화 데레사 선교사

선교사의 창 18 목동, 새로운 초대 안광훈 로벨도 신부

필리핀 이야기 20 희망의 이유 지광규 대철 베드로 신부

다시 읽는 선교잡지 22 도봉에서 온 손님 지 베드로 신부

신학원 24 스승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박요섭 요셉 신학생

후원회 26

골롬반 소식 28



표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 심순화(가타리나) 작, 180×110cm, 2015년.
한반도 위에 서 계신 성모님 뒤로 한반도 모양이 빛으로 표현되었다.

한국전쟁 70주년, 전쟁 중 순교했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오늘날 평화통일을 위해 애쓰는 이들과 함께 한국 교회 주보이신 평화의 모후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전구를 청합니다.



발행일 2020년 6월 1일 |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발행인 임영준(에이문) 신부 | 편집장 김종근(도밍고) 신부
편집위원 오기백(다니엘), 최두례(유스티나), 노혜인(안나), 김소영(세실리아) |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 인쇄 동진인쇄

어둠에서 빛으로



김종근 도밍고 신부 · '골롬반선교' 편집장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고 건네는 일상의 안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골롬반 선교사들이 전해 온 소식과 뉴스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시간입니다.

이런 재난난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무성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미사 등의 전례가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인본주의적이고 생태학적인 전환을 통해 돈에 대한 숭배를 끝내고 생명과 존엄을 중심에 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치유하고 보호하고 나눠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몇 달 동안의 세상의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여 후원회원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매일의 기도와 미사 안에서 후원회원님들을 기억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믿음을 주님께 청합니다. ✠

평화를 향한 여정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02년 사제서품 후 페루에서 선교하였고, 현재 한국지부 부지부장이며, 성소국과 평화사목국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와 민족화해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북한 대사관입니다.”

90년대 후반, 페루에서 선교 실습을 했을 때 일입니다. 여권을 갱신해야 했는데, 페루 사람인 사무장이 남/북한 대사관을 구별하지 못하여 북한 대사관에 연락하는 바람에 제가 생전 처음 북한 사람과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척 당황하던 저에게 수화기 너머 대

사관 직원은 “남조선 사람들이 종종 혼동하여 전화 거는 경우가 있다. 한민족인데 대사관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것이 조국의 현실과 같아 안타깝다”라며 통일에 대해 말했었습니다. 당시 남미에는 우리나라보다 북한과 먼저 수교를 한 나라가 많아서인지 외국인 관공서에서 북한 사람들과 가끔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 동안 같은 민족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아 슬픈 마



파주 민족화해센터 참회와 속죄의 성당 앞에서, 2018년 골롬반회 세계 젊은이 선교체험 프로그램 중에 판문점을 견학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은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다.

음이 들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북한에 대해 공부하거나 사목을 하고 싶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할 당시, 저는 골롬반회 천요한 신부(30여 년간 한국에서 선교, 현재 미국에서 활동)님이 사목하던 한인 성당에서 신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당의 한 노부부 가족은 러시아 별목장

에서 일하던 북한 청년이 난민 신청을 했을 때, 청년의 미국 생활 적응을 돕는 가정이 되어 1년 넘게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 맥을 방문하였는데, 경계심이 많았던 청년과 직접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노부부를 통해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기간에 먹고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로 갔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전쟁 순교자

골롬반회 전쟁 순교자 7위는 한국천주교회가 시복 심사 중인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에 포함되었다.



필자가 북·중 국경지대에서 바라본 강 건너 북한 땅의 모습

* 이름 아래에 순교했을 당시 사목했던 곳을 표시하였다.



고 안토니오 신부
소양로 성당



라 파트리치오 신부
목호 성당



손 프란치스코 신부
춘천에서 어학 공부 중 포로로 끌려가 사망, 북한 땅에 묻힘



진 야고보 신부
삼척 성내 성당



고 토마스 신부
목포 산정동성당



안 파트리치오 몬시뇰
광주지목구장



오 요한 신부
목포 산정동성당



작년 성탄 때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함께하는 성탄제 미사를 봉헌했다(왼쪽은 남승원 신부).

북한 동포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이 대한민국과 미국, 유럽에 살고 있다는 것도 들으면서 북한 사목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탈북 중에 두만강과 압록강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주검을 사진으로 보고 브로커에 의해 중국 여기저기로 팔려 가는 북한 동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을 느꼈고, 북한 사목을 할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2015년,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에 민족 화해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활동에 함께하게 된 저는 그해 가을, 북한·중국 접경 지역 탐방에 참가하였고, 목숨 걸고 탈북한 이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 지부는 '평화사목'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사목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영향으로 사목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별히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고 동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북

부하나센터 북한 이탈 주민 정착도우미로 등록하여 남성 주민들을 돕고 있으며, *하나원을 찾아가 수도회와 선교회의 수사와 신부들과 주일 오전,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원 교육생들이 처음으로 남한의 봉사자 가족들과 생활해 보는 '1박2일 가정문화체험'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 골롬반 후원회원들과 신자들을 봉사자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봉사자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3시에는 골롬반회 본부 성당에서 화해·평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드리는 장소는 한국전쟁 때 희생된 일곱 분의 골롬반 사제들을 포함하여 외국인 군중 사제들을 기념하는 성당이기에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춘천교구장이었던 본회 회원 구인란(퀸란) 토마스 대주교와 조선희 필립보 신부는 다른 외국인 전쟁 포로들과 함께 북한군에게 끌려가 3년 동안 '죽음의 행진'을 겪으면서 많은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고, 천신만고 끝에 생환할 수 있었습

니다. 두 선교사는 전쟁의 상흔이 남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평생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골롬반 외방선교회의 선교사제 일곱 분은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이분들을 포함한 한국전쟁 중에 순교한 81위에 대해 시복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골롬반회의 평화사목은 이분들로부터 시작하여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북한 교회에 대해 과거 희생의 기억에만 머물거나 과거의 것을 되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치유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서로 보듬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긴 호흡으로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 평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정착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보내는 이때, 골롬반 후원회원 여러분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초기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 기관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남한 가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봉사자들은 월 1회 골롬반회 성당에서 화해·평화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과의 동행



김영년 데레사 수녀

북방선교 사도직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4년 동안 그룹홈 <북자여명의집>에서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한국 생활을 동반하였다. 지금은 그룹홈을 퇴소한 이들의 정착 도우미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북자여명의 집>은 정든 고향과 부모를 두고 홀로 탈북하여 문화가 다른 남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함께 살면서 남과 북의 현실을 새롭게 배우는 삶의 자리입니다. 만15세~24세의 무연고 청소년들이 작은 가정집에서 저희 수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온 통일'을

살아보는 복된 동행에 저 또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북자여명의집> 자매들의 일상은 여느 가정의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부터 탈북하는 과정까지 학습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

작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주관 '북한이탈청년 몽골봉사'에 참가했던 그룹홈 청소년들. 벽화 그리기 봉사에서 인기 캐릭터, 무궁화, 태극기 등을 그렸다. 일치라는 뜻의 '유니타스, UNITAS' 글자도 남겼다.



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학습지와 개인 과외, 학원 수업을 받으면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습뿐 아니라 피아노, 태권도, 수영, 미술 등 예체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기쁘게도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해마다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습 지원과 병행하여 심리치료와 1:1 멘토 연계 등 정서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에 빠지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며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밖에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면서 남한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골롬반의방선교회에서 그룹홈에 관심을 두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그룹홈에서 살다가 대학 진학과 취업 등으로 퇴소한 친구들이 친정에 오듯 삼삼오오 짝지어 방문합니다. 만두, 인조 고기밥(콩깍묵으로 만든 북한의 인기 먹거리), 순대, 두부밥, 만두밥 등 북한식 명절 음식을 만들어 동생들과 먹으면서 향수에 젖어 무척 행복해합니다. 그룹홈에 사는 동생들은 이런 만남에서 선배들의 남한 정착 이야기를 들으며 도움을 받습니다.

자매들은 노숙자 급식 봉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서 나눔의 기쁨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작년 여름방학에는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주최로 몽골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살레시오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몽골 울란바토르 노명요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가서 벽화 그리기, 벽돌 쌓기, 학교 마당 잡초 제거 등 봉사를 하였고, 한국의 가요와 기타, 오카리나, 비트박스 등을 몽골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봉사 현장 체험은 저희 그룹홈 친구들에게 특별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고, 하느님 은총 안에 하나 되는 기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한국에 오기까지 개인의 탈출 과정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체험하여 천주교에 입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들을 기억하면서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주모경'을 바치며 통일을 염원합니다.



김영년 데레사 수녀와 그룹홈 식구들이 소풍을 나와 옛날식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 북한 이탈 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여 얼굴을 가린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동안 북방선교를 위한 민족화해위원회 소임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실무자들, 사제, 수도자들에게서 정보 공유를 포함한 물심양면의 도움을 받고, 그룹홈의 자매들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생에게 천주교를 알리고 소개하며 정착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하나원 방문을 할 수 없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여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평화의 길

박선희 세실리아

양강도 해산 출신이며 탈북하여 2012년에 한국에 왔다. 현재 남북하나재단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KBS한국방송, 국민통일방송, 자유아시아방송 등 TV와 라디오에서 방송 활동을 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



골롬반회를 방문했을 때 본부 정원 성 골롬반 동상 앞에서

북한에서 우리는 “종교는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아편과도 같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래서일까? 탈북민들을 보더라도 신앙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쉽게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집은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다. 국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오직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가정주부인 어머니는 우리 오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 나 역시 유치원 시절부터 공연 MC로 나라의 정책을 선전하는 일을 해왔다. 그래서인지 애국심이 강했고 종교에 대한 불신이 컸다. 우리가 살던 동네에는 황해도 출신 할머니가 사셨는데 가끔 그 집에 놀러 가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께 남들이 보안서(경찰)에 알리는 날엔 큰일이라며 말렸던 모습도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변화를 준 사건이 일어났다. ‘세계청소년 학생 축전’이 평양에서 열렸을 때 남한의 대학생이 참가했었다. 그런데 축전이 끝날 무렵 이 학생을 데리러 남한에서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왔었다. 천주교 신부라고 했다. 신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어른들에게 물어보니 하느님과 연관 있는 신분이라고 했다. 그 학생 옆에 있던 사제의 모습이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느껴졌고, ‘하느님이라는 분

은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의 고향에서 하느님에 대해 더 알 수 있거란 쉽지 않았다.

내가 먼저 탈북하였고, 압록강을 건너 탈북하던 아들이 국정수비대에 체포되었다. 절망 속에 헤매던 나는 정신 없이 중국의 번잡한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길 옆 풀밭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하느님, 저의 아들을 구해주세요! 제발 엄마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때 처음 알았다. 내 마음속에 신앙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아들은 18일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왔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주님을 믿게 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와 하나원을 수료한 후 인근 성당에서 세실리아로 세례를 받았다. 2014년에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광화문광장에서 뵈게 되었다. 무더운 여름 수많은 인파로 들쭉이던 그날, 세월호 유가족 대표를 만나 위로하던 그분을 보면서 목이 터지라 외쳤다. “교황님, 우리 고향 사람들도 하루빨리 주님의 은총을 받으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2015년 가을, 나는 한국 천주교에서 북한 사목을 하는 분들이 북·중 국경 탐방 순례길에 올랐을 때 동행할 수 있었다. 눈 덮인 백두산도 다시 보고, 철조망 너머 고향을 눈에 담았다. 뛰어가면 10분이면 가 닿을 고향을 눈앞에 두고서도 갈 수 없는 비극에 아프고 슬픈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순례길에서 처음으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부님을 만났다.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는 걸 들을 수 있었고,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던 한국인들과 함께해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골롬반회를 알게 된 후, 어느 화창한 봄날,



대한민국에서 기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필자

나는 처음으로 골롬반 선교회를 찾았다. 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걸린 선교사들의 사진을 보고 먹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분들은 한국전쟁 때 순교한 분들이었고, 그중 한 분(손 프란치스코 신부)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 북한 땅 어딘가에 묻혀 계신다고 했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노력이 하루빨리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분들은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기를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맞는 접근법으로 다가설 때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조건 없는 타협만이 마음을 터놓고 마주할 기회를 갖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평화를 바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평화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길 희망한다. 

“와서 보아라”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

서울대교구 사제이며,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지원사제로 2018년에 남미 페루로 파견되어 수도 리마 외곽 지역에서 본당 사목을 하고 있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미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한창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주님의 만찬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 페루는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어서 모든 도시를 봉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과 약국과 시장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당연히 신자들과 미사를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사는 신부와 신학생과 집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주일

에는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서 미사를 생방송 하면서 신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페루에 오기 전에 볼리비아에서 5개월 동안 스페인어를 배운 후, 재작년 성탄대축일부터 여기 본당에서 사목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성당은 수도 리마 북쪽 지역에 위치한 완도이라는 곳에 있는 ‘대천사들 성당(Los Santos Arcángeles)’입니다. 하나의 본당을 중심으로 18개 공소가 있으며, 5명의 신부가 서너 개 공

공소 봉사자들과 회의를 마치고(서 있는 사람들 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양용석 신부)



유아세례식 후 아이의 가족과 함께

소를 맡고 있고 주일이 되면 자기가 맡은 공소뿐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른 공소에 가서도 미사를 합니다. 처음 와서는 언어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 낮은 신자들과의 만남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 신부가 더듬더듬 말하면서 미사 하는 모습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신자들에게는 저의 그런 마음보다 자신들의 공소에 와서 미사를 하는 사제를 환영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낮은 곳에서 받은 환대는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해에는 회의할 때 대부분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와 녹음한 것을 반복해서 들어야 했고, 고해성사 때에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금 되묻는 저의 모습에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힘이 들수록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하루 지내면서 점점 더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만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왜 그토록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맡은 일이 점점 늘어나고 준비할 것이 많아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신자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감정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느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선교를 떠날 때 “와서 보아라.”(요한 1,39)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여 주시는 뜻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찾아가는 것은 저의 몫일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선교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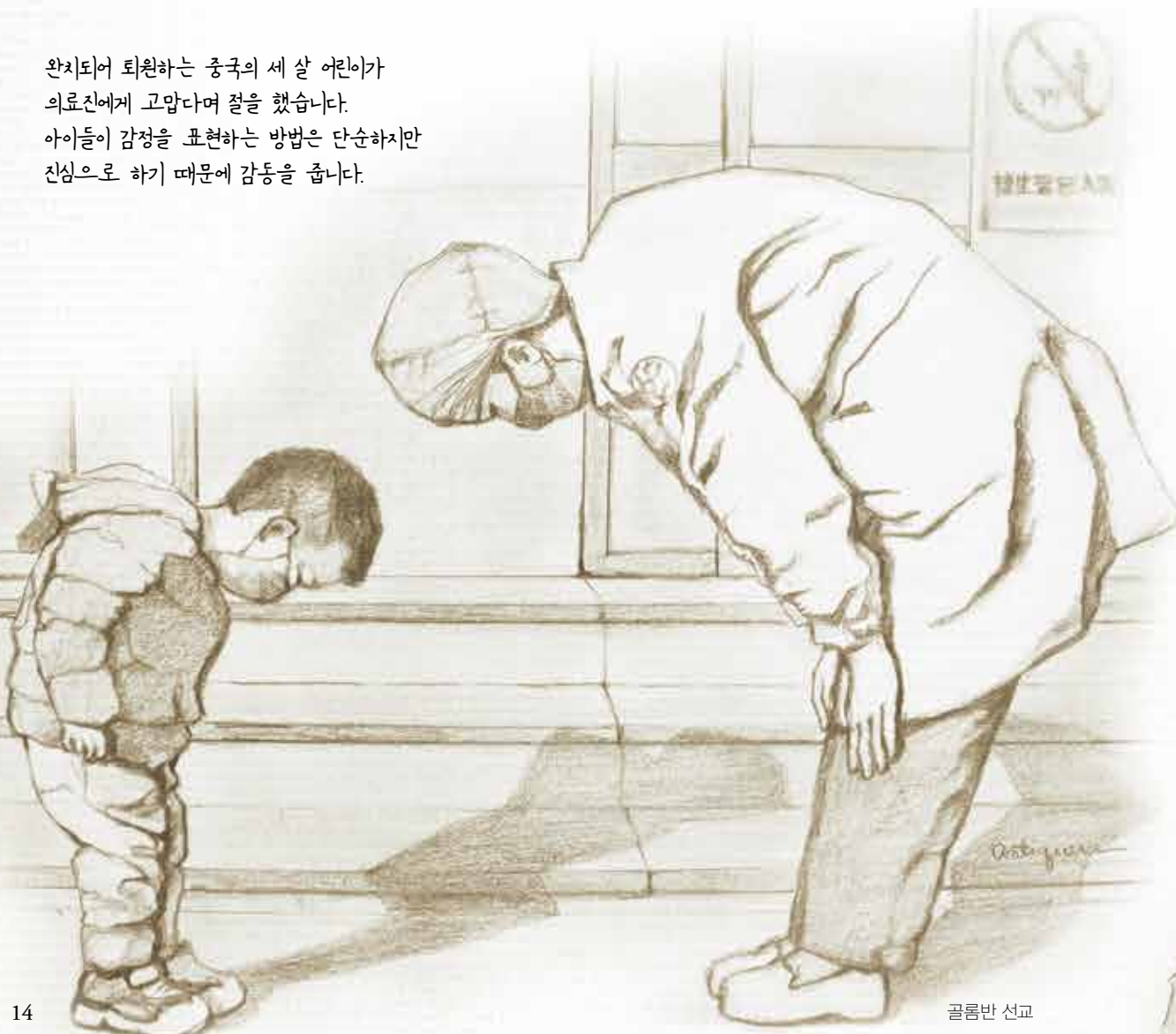
아직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들의 가족은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고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곳 신자들도 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 생필품과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기쁨과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도우며 응원할 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 신자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곳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19와 인간의 모습

글·그림 안재선 제이슨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필리핀 출신으로 2015년 1월 사제품을 받고
그해 10월 한국에 파견되었다. 현재 예술사목, 평신도선교사 리더십팀,
신학원 참사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

완치되어 퇴원하는 중국의 세 살 어린이가
의료진에게 고맙다며 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감동을 줍니다.



골롬반 선교



의사 리원량 씨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세상에 알려려다 박해를 받았으며,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다가 그 자신도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희생과 용기에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의료진들도 병이 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이 젊은 영웅의 눈동자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환자들을
돌보러 나갑니다. 이 영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 여름호



집에만 머물러야 할 때지만, 이 할머니는 생계를 위해
바깥으로 나와 과일을 팔아야 합니다.
반면, 안정된 삶을 사는 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

로까!

“힘내세요”라는 뜻의
대만 원주민 말

배시현 소화 데레사 선교사

성공률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14년에 대만으로 파견되어 산악지역 타이야족(泰雅族-Atayal) 마을에서 원주민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더불어 살고 있다. 마홍(瑪虹)이라는 원주민 이름도 얻었다.

나의 키 작은 선생님들

원주민 사목을 시작하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마을에서 만난 5살 여자아이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너는 외국인이니?”라고 물었습니다. “응, 난 외국인이야.” 하자, 아이는 “그러면 영어로 말해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단한 소개를 영어로 했는데,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너는 정말 외국인이니?”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생각했던 외국인의 모습은 피부가 하얗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5살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성당에 놀러 와서 저와 놀다가도 제가 중국어 성

조를 틀리거나 단어를 잘못 말하면 스스럼없이 고쳐줍니다. 이 마을 아이들은 저의 선생님이고, 저는 친절 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키 작은 선생님들과의 낯선 만남으로 시작한 저의 선교 생활은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주일학교 교리교사 경험 때문인지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젊은 엄마들 에게로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늦지 마! 나 안 기다리고 그냥 갈 거야.”

수줍음이 많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을 두고 계속 말을 걸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지난 성탄 때, 원주민 전통 옷을 입고 청소년들과 춤을 추었다(오른쪽 끝이 필자).



골롬반 선교



마을 아주머니들은 배시현 선교사를 만나면 언제나 반갑다. 힘든 이야기, 좋은 소식을 친구에게 하듯 편하게 들려준다.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당에 열심히 나오면서도 첫영성체를 17살이 될 때까지 하지 않고 있길래 제가 첫영성체 교리를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미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영성체를 하는 것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한 끝에 교리를 받기로 했고, 수줍음이 많은 그 친구를 위해 교리 시간에 제가 동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시간에 대한 관념은 저와 다릅니다. 미사 시간에도 10분, 20분, 어느 때는 30분 이상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불평하는 이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도전이었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시간 약속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교리가 있는 전날에는 늦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해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매 주일 아침 8시에 교리를 듣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친구는 잘 해주었고, 드디어 지난 성탄 때 첫영성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고 하느님께서도 동반하고 계심을 다시 느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로까! 힘내세요!

하루는 어떤 자매님이 몸이 아파서 집에 있는데 더 이상 살기 싫다며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신부님과 원주민 선교사, 사무장과 함께 저는 가

정방문을 갔습니다. 미사에 빠지지 않고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했던 그 자매님은 평소 모습과 달리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원주민 선교사와 사무장은 원주민 말로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자매님에게 “로까!(힘내세요)”라고 말하며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제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자매님과 그리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원주민 사목 안에서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가정 기도입니다. 가정기도에서 신자들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항상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 나눕니다. 아픈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 신자들을 통해 저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느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정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티엔주바후요(天主保佑)’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께도 항상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天主保佑” ✠

목동, 새로운 초대

안광훈 로벨도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뉴질랜드 출생으로 1965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원주교구 삼척 사직, 정선, 서울대교구 목동, 삼양·금호1가 선교본당에서 사목하였으며, 골롬반회 신학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위원회 위원, 삼양주민연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안광훈 로벨도 신부

원주교구에서 임기를 마치고 첫 안식년을 다녀와서 1981년 이맘때 목동성당 주임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목동 신자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친절하며 정이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아 활기가 넘쳤지요. 주변에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인지 젊은이들은 성당 마당에 자주 모였습니다. 그때 그 신자들과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골롬반회 홍보를 하러 목동 근처 신월동성당에 가서 매 미사에서 강론을 했는데, 예전에 목동성당 신자였던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는 “목동에 살다가 철거되면서 쫓겨나 이사왔다”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동에 와서 보니 안양천변을 따라 판자촌들이 많았습니다. 전쟁 때 집을 잃은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았고, 박정희 정권은 재건 사업으로 서울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쓰레기 차에 태워 그곳에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인구가 점점 늘었습니다. 골롬반회는 이 지역에 세 개의 본당(신정동성당, 목동성당, 등촌동성당)을 짓고 활동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 재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구로 공단의 폐수가 안양천과 한강으로 흘러들었고, 지하수가 오염되어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목동 지역의 재개발은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다가 판자촌을 보게 될까 우려했습니다. 당시 정권은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재개발 소식을 듣고 주민들은 이제 잘살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아니었기에 철거민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강제 철거에 맞서다 용역 깡패에게 얻어맞아 다치거나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몰랐고 그저 마음을 같이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대교구 목동성당에서 사목하던 시절 청년들과 함께

사태를 깨달은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철거민대책위원회는 성당 교리실에서 모임을 하게 해달라고 했고 저는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100여 명이 그들을 잡기 위해 성당 앞에 진을 쳤습니다. 철거민들이 며칠째 성당에 머무르니 이를 반대하는 신자들도 있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구청장과 경찰 서장이 사제관으로 찾아와 철거민들을 내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나가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내보낼 수 없다.”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12시가 되자 자기들이 왔으니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바보같이 따라 나갔고, 그 사이 경찰들이 들이닥쳐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70년대 서울 여기저기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자 교구 사제, 수도회, 선교회 남녀 수도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 철거민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인권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도시빈민사목회 즉 천도빈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였습니다. 저는 예수회 故 정일우 신부와 故 제정구 선생의

뒷받침으로 재개발로 쫓겨난 사람들을 목화마을로 이주하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두 분이 시흥시에 만들었던 철거민들의 공동체인 ‘복음자리’와 ‘작은자리’에 이어 세 번째 마을인 목화마을은 ‘목동에서 보금자리를 철거당한 주민들이 화합을 이루어 산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독일에서 돈을 얻고, 골롬반회에서 기부를 받아 목화마을을 만들 때 보탬이 있었습니다. 110세대가 이주하여 지금까지 좋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목동에 가서 겪었던 많은 일들은 저를 도시 빈민들과 함께하는 길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 또한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뒷받침하며 같이 손을 잡고 사는 삶입니다. 제 꿈은 이웃들이 서로 도우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마을,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선에서부터 지금 마을 운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삼양동에서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

희망의 이유

지광규 대철 베드로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6년 사제서품을 받았고, 필리핀으로 파견되어 마닐라 말라떼 성당에서 사목했으며, 현재는 필리핀 북쪽 잠발레스 지역의 성 로사 성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필자(왼쪽)가 사목하는 본당의 주임신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지 않았던 시기, 필리핀은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나 재원 부족, 경제적 이유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확진자 숫자가 적다 보니 안심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라에도 확진자가 늘었고, 정부는 나라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잠발레스(Zambales)주의 까방간(Cabangan) 지역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통금 시간이 정해졌고,

코로나19로 거리에서 성지가지지를 축성하였다. 외출이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사제들은 성사 집행 시 외출이 허락되었다.

지역 간 이동과 사람들의 모임도 제한되었습니다.

얼마 전, 본당 신자 한 분이 저에게 다급하게 메신저로 연락을 했습니다.

“신부님! 혹시 본당 신부님 안 계신가요?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지금 공소에 가셨는데, 무슨 일이시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혹시 신부님께 지금 병자성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골롬반 선교

저는 서둘러 성유와 성수 등을 챙겨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는 보기에든 임종 직전이었고, 매우 고통스러워했으며 가쁜 숨을 내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성사가 끝날 즈음,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칠 때 할아버지께서도 잠시나마 저희와 함께 주님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거칠었던 숨은 많이 차분해졌고 알 수 없는 말씀도 더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성사를 마치고 조용히 집을 나서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어린 손녀에게 “지금 할아버지가 아주 힘들어하시니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겠니?”라고 물었고,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에 가족들로부터 할아버지께서 성사를 받은 다음 날, 편안한 얼굴로 선종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실은 병자성사가 있던 그 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본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탔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난리인 상황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 환자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사람의 몸을 만졌구!” 하며, 저는 차 안에 있는 손 세정제로 열심히 손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마태 16,16)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당신의 수난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손을 닦으면서 불평하던 저는 갑자기 이 복음 말씀이 떠올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괴감이 밀려오면서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제품을 받았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제단에 었드리며 “저는 당신의 도구이오니 사제로서 부여받은 모든 성사적 권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



도시 봉쇄로 외출이 어려운 시기, 소나기가 내린 직후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희망의 징표인 것 같아 필자가 성당 꼭대기에 올라가서 카메라에 담았다.

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의 성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두려움 없이, 조건 없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날, 주어진 상황이 평범하지는 않았기에 사제로서 비난받을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사 중에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던 나약한 한 사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혼란한 시기에 이곳 필리핀을 포함하여 한국과 많은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삶은 지속될 수 있으며,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 33).

도봉에서 온 손님

지 베드로 (Peter Tierney, 1931~2009) 신부

1968년 12월 1일에 낯선 두 사람이 본부로 찾아왔다. 낡고 해진 한복을 입은 한 사람은 나이가 꽤 많아 보였고, 동행한 이는 훨씬 젊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던 두 사람은 분명히 불편했을 것이다. 내가 응접실로 들어가자마자, 둘은 일어나서 허리를 크게 굽혀 인사했고, 바쁜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찾아주어서 영광이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도록 했다. 틀림없이 무슨 문제나 부탁이 있는 것이 두 사람 얼굴에 씩여있었다. 실례가 될까 봐 한국의 풍습대로 방문 이유는 묻지 않고 기다렸다. 나는 그들에게 신자들이냐고 물었는데, 젊은이가 노인의 얼굴을 보았고, 그제야 노인은 크게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도봉동성당 축성식(1991년 12월 1일), 김수환 추기경과 골롬반회 현 파트리치오 신부(오른쪽), 보좌 고 가비노 신부(왼쪽)

“네, 저희는 신자들이고 서울대교구 대주교(故 김수환 추기경)님이 신부님께 가보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저희는 걸어서 약 두 시간 걸리는 ‘도봉(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이라는 곳에서 삽니다. 개발 지역이라서 공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사방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이사 온 사람 중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주일 모임을 갖기로 했고, 신부님이 안 계시니 모여서 기도라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지 한참이 되었고,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

도봉동성당 견진성사를 마치고(1977년). 성사를 주례한 경갑룡 주교와 당시 주임이었던 골롬반회 전 야고보 신부



아저 그 집도 비좁게 된 모양이었다. 신자가 400명 있고, 30여 명이 세례반을 준비가 되었다고 했다. “저희가 사제 없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젊은이와 제가 대표로 선출되어 대주교님께 가서 사정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주교님은 보낼 신부가 없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대주교님이 ‘희망이 하나 있긴 한데, 골롬반 신부들에게 가서 부탁해 보면 어떨지, 혹시 보내줄 신부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하면서 여기 주소를 알려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조용히 기다렸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다. 나는 먼저, 그들의 신앙과 열성과 노력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고 마음을 표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도와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막 한국에 온 젊은 선교사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니 고백성사나 강론에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본부에 있는 두 신부인 현 파트리치오 신부와 나는 한국지부의 일로 바빴기 때문이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듯했고, 잠시 후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신부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체성사가 필요하고, 일 년 이상 고백성사를 못했습니다. 신부님,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매 주일 오전 10시에 우리 집에서 신자들이 모이니 주일 하루만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신다면 무척 기쁘겠습니

다.” 곧 성탄 대축일이 가까오는데, 그들은 분명히 곤란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선 성탄 축일에 내가 가서 미사를 하고 관공성사를 주겠다 약속했다. 그다음은 하느님의 손에 맡기자고 말했다. 그들은 지도 위에 동네 위치를 알려 주고 돌아갔다.

현 파트리치오 신부와 상의하여 다음 주일에 우리들이 같이 도봉에 갔다. 아침 9시, 마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영해 주었다. 곧바로 현 신부가 방에서 고백성사를 주었고, 나는 미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방의 미닫이문을 열고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사를 드렸다. 아주 감동적인 체험이었다. 대략 130명쯤 영성체하지 않을까 짐작했는데, 훨씬 더 많이 했다. 어른들 사이에 어린이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미사가 끝났는데도 고백성사 줄은 끝나지 않았다. 옆집에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먹는 동안에 신자들은 먹지 않고 기다렸다. 나는 미사를 같이 드리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고, 그들의 노력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청하며 강복을 했다. 그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이 새 공동체(훗날 서울대교구 도봉동성당)를 위하여 매 주일에 미사를 하러 갔다. 그때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의 성당이 생기고, 그들의 신부가 거처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해설



지 베드로 신부

지 베드로 신부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1955년에 서품을 받고 1958년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광주대교구와 부산·인천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습니다. 이 글은 한국지부장으로 일할 때 쓴 글인데 이 시기에 그는 서울과 경인 지역 여러 곳에 성당 부지를 마련하고 성전을 건립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였습니다. 교회법을 전공했던 지 베드로 신부는 광주대교구 법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골롬반회는 도봉동성당을 설립하여 1970년 강 디오니시오 신부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기 바오로, 전 야고보, 천 요한 신부 등 10명이 사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당 출신인 권태문 사도요한 신부가 골롬반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스승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박요섭 요셉 신학생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생. 2015년에 입회하여 2018년 유기사약을 하였다.
서울가톨릭대학교 5학년으로 신학을 전공하고 있다.



골롬반회 신학원 가족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 신학원장 오기백 신부, 신학생 진가람·정승·심홍석, 부원장 주다두 신부, 신학생 박요섭·노승준·이우빈
* 선교 실습, 영성의 해, 연수로 외국에 있는 신학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롬반회에서는 '신학원'을 영어로 포메이션 하우스(Formation House)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신학생들이 형성(Formation)되는 곳인데, 특별히 저희는 선교

사제로 형성되어 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찍어 내듯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받은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느님과 관계를 깊게 해 나가며 골롬반회의 카리스마 안에서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도록 양성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선교회의 독특한 양성 과정은 저희의 여정이 선교사제가 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일생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바오로 사도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2코린 4.7)라고 고백하듯이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신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신학생들은 아일랜드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골롬반회의 지부장 신부님은 저희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필리핀에서 영성의 해(수련 과정)를 보내면서였습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각자가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다움'이 필요하셨듯이 우리에게서도 '나다움'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나 직무, 사회적 위치에서의 나의 가려져 '진짜 나'를 잃지 말라는 의미였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 나'를 만나야 한다는 초대였습니다. 하느님 앞에 발가벗겨진,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 있음으로써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을 갖기 위하여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어가는 길을 함께 걷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도전을 주고받으며 계속 깎여져 나가고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부족함도 지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상처받고 떨어진 자존감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치유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

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값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은 제가 당신의 자비로 용서 받는 죄인임을 알게 해주며 느리지만 조금씩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희망하게 합니다.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이사 43.4)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저 또한 진실성과 항구한 태도를 가지고 응답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에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스승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와서 보아라"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나설 수 있도록 오늘도 골롬반 선교회의 모토인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가 되고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

골롬반 성인상 옆에 선 필자



문의

CMS 자동이체의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 02-929-1366
이메일 : korseoul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 062-371-5824
이메일 : korkwangjufund@columban.or.kr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020년 6월 ~ 9월

	6월	7월	8월	9월	장 소	문 의
서울	-	3일	7일	4일	돈암동 골롬반본부	02-929-2977
인천	9일	14일	-	8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0일	8일	-	9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2일	10일	14일	11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5일	23일	27일	24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3일	28일	25일	22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4일	29일	26일	23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5일	30일	27일	24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6일	31일	28일	25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1일	-	-	10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17일	15일	19일	16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21일	-	15일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16일	-	18일	-	서귀포 성당	064-762-3444

인천, 원주 • 8월에는 미사가 없습니다.

* 코로나19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선교 잡지 (3, 6,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골롬반회 본부 대문의 새 모습

한국지부 본부의 한옥 대문과 지붕이 보수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70년 가까이 사용했던 것인데 작년 장마 때 기와지붕이 무너져 내려 보수가 시급했습니다. 아름다운 한옥식 대문은 도심 속 지역 주민들과 골롬반을 방문한 분들에게 외방 선교회에 대해 편안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갖게 했습니다. 곧, 열린 대문으로 많은 분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미사 드리며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한 미사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가 중단되면서 골롬반회 또한, 후원회 미사와 면담고해성사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매년 사순과 부활에는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강당이 가득찬 가운데 미사를 드렸는데, 올해는 본부에 머무는 사제들만 5층 성당에서 전례를 봉헌하였습니다(사진). 비록 만날 수 없었지만, 골롬반 선교사들은 매 미사와 기도에서 후원회 여러분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임피제 맥글린치 신부 선종 2주기 추모 미사

지난 4월 23일, 제주 금악성당에서 임피제 신부 선종 2주기 추모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골롬반회 이어돈 미카엘 신부와 주 예레미야 신부, 황 프란치스코 신부 그리고 제주교구 사제들이 공동집전하였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임피제 신부는 1953년 한국으로 파견되어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목축업을 일구어 가난했던 제주도 사람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2018년 4월 23일 향년 90세로 선종한 임피제 신부는 한평생을 바친 성 이시돌 목장 땅에 묻혔습니다.



장은열 골롬바 선교사 이주민 사목 시작

작년, 한국지부로 발령받았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장은열 골롬바 평신도선교사가 5월부터 파주 엑소더스(의정부교구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결혼 이주민 등을 동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가 파견한 첫 번째 평신도 선교사 팀인 장은열 선교사는 1990년 필리핀으로 파견되어 18년 동안 활동하고, 미얀마와 홍콩에서 일했으며, 올해 선교 생활 30년을 맞았습니다.



영화 『저 산 너머』에 안광훈 신부 출연

故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그린 영화 『저 산 너머』에 골롬반회 안광훈 로벨도 신부가 단역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故 정채봉 작가가 김수환 추기경을 인터뷰하여 엮은 동화 『바보 별님』입니다. 주인공인 배우 이경훈 어린이가 김수환 추기경을 많이 닮아 더 큰 감동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안광훈 신부는 이 영화에서 대구교구장 주교 역할을 맡아 사제서품식을 주례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찬미받으소서 주간’에 참여한 골롬반회 선교사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계 신자들에게 생태적 화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찬미받으소서 주간(5월 16일~24일)’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각 나라 교회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를 위한 행동을 다짐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영국, 파키스탄, 피지, 호주 등의 골롬반회도 동참했으며, 한국지부는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함께 명동에서 기후 위기 선포 피케팅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광화문광장에서 함편의 파트릭 신부와 노헤인 선교사가 '가톨릭기후행동'과 함께 피케팅을 하였다.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5월 10일(둘째 주일) 오후, 코로나19로 석 달 만에 재개한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이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성모성월을 맞아 성모님을 모시고, 생활과 복음 목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있거나 선교사의 삶을 고민하는 남녀 청년(만 23세~40세)들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관심자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젊은이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사제성소모임

5월 첫째 주일, 지난 2월 이후 오랜만에 성소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새로 참여한 성소자와 함께 골롬반 신학원 성당에서 성소자들과 신학생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모임 후에는 신학원에서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성소와 신학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 달 모임을 기억했습니다. 선교 사제에 관심 있는 35세 이하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지닌 청년들은 문을 두드려 주세요. 대화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속 신학원 이모저모

서울 가톨릭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골롬반회 신학생들은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되고 등교하지 못했을 때, 신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쉽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중간고사도 잘 치렀다고 합니다. 5월 17일에는 메리놀외방선교회 마필운 신부의 지도로 하루 피정을 하였고, 5월 29일에는 골롬반회 선교사들을 초대하여 성모의 밤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동안 신학원 공동체가 날마다 바쳐왔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가 열매 맺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신학원 도서관에서 온라인 수업과 과제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SNS로 초대합니다!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선교사들의 해외선교 활동 모습과 근황, 골롬반회 행사 안내, 선교 정보, 교회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모바일 화면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CMS 정기후원과 일시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골롬반회의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골롬반회의 SNS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주변 이웃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널리 알려 주셔서 골롬반 선교로 초대해 주세요.

홈페이지

한국지부 www.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www.columbanmission.org

* 전체 지부가 함께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소식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홍보해 주실 거죠?

유튜브

선교사들의 활동, 인터뷰, 강론, 해외선교 자료 등 동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롬반TV를 검색해 주세요.



페이스북

한국지부 www.facebook.com/columbankorea
평신도선교사 www.facebook.com/LMcoordinator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인스타그램

한국지부 www.instagram.com/columban_korea
평신도선교사 www.instagram.com/clmkorea
성소국 www.instagram.com/korvocation

'팔로잉'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Ch 카카오톡 채널 추가

- 1 카카오톡 실행
- 2 검색창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입력
- 3 Ch + 채널 추가 후 확인 누르기
* 또는 왼쪽 QR코드 촬영 후 채널 추가 누르기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롬반회 이제훈 아오싱 신부가 공소 미사에서 성수 예식을 하고 있다. 미얀마 북쪽 로자나 마을에 있는 이 공소는 마을 사람들이 손수 대나무를 엮어 벽을 세우고, 양철 지붕을 덮어 만들었다고 한다.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2) 929-4841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최유진 올리벳다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신부 / korassocodi@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